

연금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Economic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t Pension-Eligible Age

박 창 제*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hangje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 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다음,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연금 수급 연령에 해당하는 62세 이상 고령자 4,895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식은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소득은 62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택 소유는 62세 이상 고령자 생활만족도에 각각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7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특수직역연금 수급은 6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 가구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과 특별직역연금 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통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제어 : 고령자, 생활만족도, 경제 요인, 공적연금

* Correspondence to: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 41837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email: cjpark@kn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conomic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t pension-eligible age and then to discuss implications for the findings. Data from the KReIS in 2021(9th) 4,895 older adults aged 62 or older at Pension-Eligible Age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or the analysis,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ousehold income significantly positively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ged 62 and older, respectively. Second, house-ownership significantly positively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ged 62 and older, respectively. Third,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eip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ged 72 and older. Fourth,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receipt significantly positively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ged 62 and older, respectively. Policy implication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areful policy consideration is needed regarding support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adults. Second, we need to explore ways to increase household income for older adults households.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or integrate the ga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Key words :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economic factor, public pension

I. 서론

생활만족도는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으며, 충만하거나 질이 높은 정도를 말한다(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2022). 노년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활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퇴나 경제활동의 축소, 의료비 증가, 재무적 노후 준비 부족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노년기 고령자의 생활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Ando와 Modigliani(1963)가 제시한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금전을 빌려 쓰고 근로 연령기에는 빌린 금전을 갚고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한 다음, 은퇴 기간에는 저축한 돈을 모두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라이프 사이클 모형의 전지에서는 은퇴 이전의 경제적 선택이 은퇴한 뒤 노년기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퇴 이전에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을 포함한 적절한 경제적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은 노년기에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개인보다는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문화로 인하여 노화 과정에 따른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해가 갈수록 고령자의 노후 준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 노후 준비의 충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고령자가 56.7%에 지나지 않는다(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4a).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도 아주 높은 편이다.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1년

47.9%에서 2022년 39.8%로 완화됐지만(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3a), 아직도 OECD 국가 평균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의 거의 3배나 된다(OECD, 2023a).

노년기에는 은퇴하거나 저임금 노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낮아지고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노년기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있다.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공적 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0층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데 빈곤 노인의 소득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수급하게 된다. 다만,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등으로 상승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의 조사 연도인 2021년 기준으로 62세가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요 노후 준비 방법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예·적금 19.8%, 특수직역연금 11.0% 순이며, 부동산 운용 9.9%, 사적 연금 4.6%, 퇴직급여 3.5%, 주택연금 3.3% 순을 보였다(통계청, 2024a).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노후 준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6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도 논의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프 사이클 모형

Ando와 Modigliani(1963)는 라이프 사이클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선택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물려받은 유산 없이 경제 생활을 시작하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경제 생활을 끝낸다고 가정한다. Clark et al.(2004)은 이 모형을 변형하여 20~25세 이전엔 아동·청소년기로 학령기, 그 이후 60~65세까지 노동 연령기, 60~65세 이후 은퇴기로 구분하였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25세 이전의 아동·청소년기와 60~65세 이후의 노년기엔 소비액이 소득액을 초과할 것이고, 생애 중간에 속하는 노동 연령기에는 소득액이 소비액을 초과할 것이다. 여기서 전체 생애 소비액과 전체 생애 소득액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모형은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경제생활과 경제생활 단계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를 설명하는 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정년이

60세이고, 많은 근로자가 60세 전후에 오래 다닌 일자리에서 퇴직을 한다. 퇴직한 다음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고 일정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이어간다.

근로자들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노년기 이전에 공적연금 등 경제적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이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안녕감이며, 정서적 안녕이라는 단기적인 감정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Warr et al., 2004). 고령자의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Neugarten et al.(1961)이 생활만족도 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면서 학문적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심리적 안녕의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인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 지표를 활용하여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분리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Havighurst et al.(1968)은 생활만족도를 삶의 목표 달성이나 욕구 만족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로 보았다.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라 정의되며,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은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기 보고식의 측정이 피상적이며, 개인의 주관적 안녕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Hillier & Georgia, 2011).

고령자 겪는 노년기는 고립과 소외를 초래하는 사회적 상실은 물론이고, 은퇴에 따른 경제적 상실의 시기이기도 하다(Park, 2022). 이러한 부분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에 노년기는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돌봄과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고, 경제활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줄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Calvo et al.,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질과 연령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어떤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는 젊은이보다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Diener & Biswas-Diener, 2017).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Winklemann & Winklemann, 1993). 생활만족도는 연령과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Myers, 2000).

3. 고령자 생활만족도의 경제적 요인

생활만족도는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생활환경과 사회적 환경, 개인 태도,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욕구(needs) 등에 달려 있다(Clark et al., 2004).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 대부분은 수량화하거나 측정하기 어렵지만, 개인의 재무적 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요한 경제적 요인들로는 경제활동, 가계소득, 부동산, 부채, 공적부조,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그만두면 새로운 사

회생활 조정이나 적응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연구는 많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im et al., 2014; Lee, 2013). Choi와 Yoon(2012)의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와 참여하지 않는 고령자를 비교한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 수준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im과 Park(2023)의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령자가 직장 은퇴를 하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Calvo et al., 2013)도 있다. Lee와 Chun(2001)은 농촌거주 노인이건 도시거주 노인 이건 경제활동은 생활만족도에 아주 부적인 영향을 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여부도 도시거주 노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산복지효과이론에 의하면, 자산의 보유는 생활만족도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Sherraden, 1991: 148-167). Park(2022)의 연구에 따르면 60~79세 남성 고령자들의 부동산 자산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는 60~79세 남성 고령자와 60~69세 여성 고령자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Park(2023)의 연구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65세 이상 고령

자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Kim(2017)에서는 실물자산과 총 부채/자산 비율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주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다(Park, 2015; Kim, 2017).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Kwon과 Cho(2019)의 연구에 따르면 공적연금인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은 그 유의성이 아주 높았다. 이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Kim과 Yang(2023)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조사에서 공적연금을 수급받는 노인들이 수급받지 않는 노인들에 비하여, 그리고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 수급액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Kim(2022)의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소득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같이 생활만족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은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2).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의 노후생활 보장에 보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Lee & Li, 2022).

III. 연구방법

1. 자료설명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9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KReIS)자료(2021년)를 이용하여 당시 연금 수령 연령인 62세 이상 고령자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다층노후 소득 보장 대책을 수립하고자 전국의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경제적 요인인 경제활동, 가계소득, 부동산, 부채, 공적부조,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 자료로서 적합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다르다. 즉, 1953~1956년생은 수급 개시 연령이 61세이고, 1957~1960년생은 수급 개시 연령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예정되어 있다. 제9차 조사 연도인 2021년 당시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1959년생 연령인 62세부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62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4,8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IRB승인(생명윤리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 면제 승인 사항 포함)을 받았다.

2. 연구모형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 등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 설문지에서 “귀하는 귀하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5점 척도의 응답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경제활동, 가계소득, 부동산, 자가 여부, 부채, 기초생활보장수급, 국민연금 수급,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인연금수급으로 구성하였고, 연속변수인 가계소득을 제외하고 더미 변수화하였다. 다만, 가계소득은 정규성을 높이기 위하여 로그화를 진행하였다. 통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자녀 수로 구성하였고, 건강 요인으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으로 구성하였다. 연속변수인 연령, 자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연속변수가 아니어서(명목변수, 서열변수) 더미 변수화하였다.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1>과 같다.

2) 회귀모형

종속변수가 선택형 범주이고, 이 범주들 사이의 순서가 의미를 지니는 경우는 순서형로짓(ordered logit)이나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척도가 순서형 선택 범주이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순서형 변수를 모형화하기 위해서 먼저 종속변수의 선택을 결정하는 잠재 변수(latent variable) y_i^* 가 존재하고, 이는 식 1과

Table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변수명	변수설명 및 측정 방법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통제변수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연속변수
결혼상태	1=유배우, 0=기타
교육수준	1=고졸 이상, 0=중졸 이하
자녀수	연속변수
거주지역	서울/광역시=1, 0=도지역
신체적 건강	1=좋음 이상(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보통 이하(보통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심리적 건강	1=좋음 이상(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보통 이하(보통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독립변수	
경제활동	1=하고 있음, 0=기타
가계소득	연간, 천원단위 금액 자연로그 취함
부동산	1=있음, 0=없음
자가여부	1=자가, 0=전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기타
부채	1=있음, 0=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	1=수급, 0=아니오
국민연금수급	1=수급, 0=아니오
특수직역연금 수급	1=수급, 0=아니오
개인연금수급	1=수급, 0=아니오

$$y_i^{**} = \beta_0 + \beta_1 Sex + \beta_2 Age + \beta_3 Maritas + \beta_4 Edu + \beta_5 Chldno + \beta_6 Reg + \beta_7 Phyhl + \beta_8 Psyhl + \beta_9 Labor + \beta_{10} Income + \beta_{11} Reesta + \beta_{12} Hown + \beta_{13} Debt + \beta_{14} Publicas + \beta_{15} Napen + \beta_{16} Sppen + \beta_{17} Privpen \quad \text{식 (1)}$$

† 관찰된 종속변수 y_i 는 생활만족도의 범주 1, 2, 3, 4, 5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begin{aligned} y_i=1, & y_i^* \leq \delta_1(\text{매우 불만족}), \delta_1 < y_i^* \leq \delta_2(\text{불만족}) \\ y_i=3, & \delta_2 < y_i^* \leq \delta_3(\text{보통}) \quad y_i=4, \quad \delta_3 < y_i^* \leq \delta_4(\text{만족}) \\ y_i=5, & y_i^* \geq \delta_4(\text{매우 만족}) \end{aligned}$$

같은 선형함수로 표현된다.

단, Sex, Age, Maritas, Edu, Chilno, Reg, Phyhl, Psyhl, Labor, Income, Reesta, Hown, Debt, Publicas, Napen, Sppen, Privpen은 각각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수준, 자녀 수,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경제활동, 가계소득(로그값), 부동산, 자가, 부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국민연금수급, 특수직역연금수급, 개인연금수급을 나타낸다.

3) 분석 방법

통계프로그램 Stata 13.0을 활용하여 위에서 기술한 연구모형에 기반을 두어 순서형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62세 이상 고령자 4,895명(62~71세 2,099명, 72세 이상 2,796)의 관련 특성에 대하여 정리한 기술적 통계이다. 62세 이상 고령자 중 두 집단(62~71세, 72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은 연령대별로 공적연금 수령 비율, 연금 가입 기간과 수령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이다.¹⁾

1)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는 1988년 4,432천명, 2006년 17,739천명, 2021년 22,347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노령연금수령자는 10,971명, 2021년 4,894,452명으로 늘어났으며,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수급자는 2008년 20년 이상 12,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11,577

62세 이상 전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평균 3.37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62~71세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48이었고, 7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28로 연령이 높아지면 생활만족도가 약간 떨어졌다.

성별에서 전체 표본의 남성 비율은 42%로서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다. 72세 이상 남성 비율은 더 낮아졌다. 연령은 평균 73.7세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약 65%였다. 62~71세는 79%, 72세 이상은 54%로 고령화로 사별이 늘어나면서 유배우자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교육 수준은 고졸 이상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평균 35% 수준이고 62~71세는 50%, 72세 이상은 23%로 고령화할수록 교육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자녀 수는 전체 고령자는 평균 2.91명이고, 62~71세 2.25명, 72세 이상 평균 3.4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가 전체는 43%이고, 62~71세 45%, 72세 이상 41%로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도 지역 거주 비율이 높아졌다. 신체적 건강이 ‘좋은 이상’인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33%이고, 62~71세는 46%, 72세 이상은 23%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건강 수준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정신적 건강은 ‘좋은 이상’인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48%이고, 62~71세는 60%, 72세 이상은 40%로 나이가 들수록 심리적 건강 수준도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전체는 36% 수준

명, 2021년 20년 이상 748,853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064,034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 2024).

Table 2. 기술적 통계

구분	62세 이상 (N=4,895)		62~71세 (n=2,099)		72세 이상 (n=2,79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3.37	0.631	3.48	0.607	3.28	0.635
통제변수						
성별(1=남성)	0.42	0.493	0.45	0.498	0.39	0.487
연령	73.66	7.756	66.24	2.938	79.22	5.154
결혼상태(1=유배우자)	0.65	0.477	0.79	0.407	0.54	0.498
교육수준(1=고졸이상)	0.35	0.611	0.50	0.615	0.23	0.579
자녀수	2.91	1.386	2.25	0.955	3.41	1.452
거주지역(1=서울, 광역시)	0.43	0.495	0.45	0.498	0.41	0.492
신체적 건강(1=좋음이상)	0.33	0.470	0.46	0.499	0.23	0.419
심리적 건강(1=좋음이상)	0.48	0.500	0.60	0.490	0.40	0.490
독립변수						
경제활동(1=경제활동)	0.36	0.479	0.51	0.500	0.24	0.429
가계소득(로그값) [†]	9.40	2.561	9.73	2.603	9.16	2.502
부동산(1=있음)	0.95	0.228	0.98	0.150	0.92	0.270
자가여부(1=자가)	0.79	0.405	0.81	0.392	0.78	0.414
부채(1=있음)	0.39	0.488	0.54	0.499	0.28	0.450
기초생활보장수급(1=수급)	0.04	0.194	0.03	0.164	0.05	0.213
국민연금 수급(1=수급)	0.38	0.485	0.44	0.497	0.33	0.470
특수직역연금수급(1=수급)	0.06	0.235	0.05	0.219	0.07	0.247
개인연금수급(1=수급)	0.03	0.167	0.06	0.241	0.00	0.060

† 주의: 로그값을 취하지 않았을 때 평균 가계소득 62세 이상 30,709.18(천원), 62~71세 39,256.12(천원), 72세 이상 24,292.87(천원)

이고, 62~71세는 51%, 72세 이상은 24%로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 비율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로그를 취하지 않은 평균 연간 가계소득은 전체는 30,709.18(천원), 62~71세 39,256.12(천원), 72세 이상 24,292.87(천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계소득이 크게 낮아졌다. 부동산 보유 비율은 62세 이상 전체는 95%, 62~71세 98%, 72세 이상은 92%로 연령

이 높아지면서 보유 비율이 약간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령자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거하고 있는 집의 자가여부는 전체적으로는 79%였지만 62~71세는 81%, 72세 이상은 78%로 나이가 들수록 자가 비율이 떨어졌다. 부채가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39%이고, 62~71세는 54%, 72세 이상은 28%로 나이가 들수록 부채 비율이 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4%이고, 62~71세는 3%, 72세 이상은 5%로 나이가 들수록 수급 비율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수급을 받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38%이고, 62~71세는 44%, 72세 이상은 33%로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자가 국민연금 수급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을 받는 비율은 아주 낮았다. 전체적

으로는 6%이고, 62~71세는 5%, 72세 이상은 7%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이 공적연금의 보충연금이지만 수급을 받는 인구가 62~71세는 6%이고 72세 이상은 1%도 되지 않았다.

2. 로짓 회귀분석 결과

<표 3>은 연금 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Table 3. 연금 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순서형 로짓분석

구분	62세 이상 (N=4,895)		62~71세 (N=2,099)		72세 이상 (N=2,796)	
	Odds Ratio	Z값	Odds Ratio	Z값	Odds Ratio	Z값
통제변수						
성별(1=남성)	0.93	-0.93	0.98	-0.18	0.89	-1.13
연령	0.98***	-3.57	0.97	-1.60	0.97**	-2.36
결혼상태(1=유배우자)	1.58***	6.12	1.80***	4.67	1.51***	4.22
교육수준(1=고졸이상)	1.12*	2.07	1.15	1.54	1.11	1.48
자녀수	1.08**	2.85	1.06	1.07	1.08**	2.56
거주지역(1=서울, 광역시)	0.99	-0.09	1.05	0.56	0.95	-0.56
신체적 건강(1= 좋음이상)	1.89***	8.32	1.79***	5.25	2.01***	6.65
심리적 건강(1= 좋음이상)	2.49***	12.83	2.55***	8.25	2.46***	9.84
독립변수						
경제활동(1=경제활동)	1.14	1.83	1.15	1.37	1.14	1.39
가계소득(로그값)	1.06***	5.20	1.05***	3.04	1.07***	4.17
부동산(1=있음)	0.95	-0.35	0.81	-0.65	1.05	0.30
자가여부(1=자가)	1.90***	7.11	2.24***	6.00	1.65***	4.08
부채(1=있음)	0.94	-0.95	0.87	-1.36	0.99	-0.02
기초생활보장수급(1=수급)	0.40***	-5.26	0.56	-1.78	0.35***	-5.14
국민연금 수급(1=수급)	1.17*	2.28	1.15	1.33	1.20	1.90
특수직역연금수급(1=수급)	1.85***	4.54	1.97***	2.97	1.80***	3.45
개인연금수급(1=수급)	1.39	1.77	1.33	1.44	2.66	1.50
Log Likelihood	-4094.4288		-1697.9935		-2389.5222	
χ^2	1085.61***		425.16***		551.16***	
Pseudo R ²	0.1171		0.1113		0.1034	

$p < .05$, ** $p < .01$, *** $p < .001$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stic model)으로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62세 이상 전체, 62~71세, 72세 이상 각 회귀모형 모두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수는 0.4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회귀 계수 값은 추정 계수 대신 승산비(odds ratio)로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62세 이상 전체모형의 경우, 통제변수 중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p<0.001$). 결혼상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은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유의성이 약간은 낮아졌지만, 교육수준($p<0.05$), 자녀 수($p<0.01$)도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2~71세 고령자로만 구성할 때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p>0.05$), 자녀수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혼상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은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72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엔,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72세 이후의 고령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수도 62~71세 고령자와 달리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역시 결혼상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은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독립변수로 설정된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가계소득은 62세 이상 전체, 62~71세, 72세 이상 고령자 모형 모두에서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62~71세 고령자의 경우엔 가계소득이 1단위 증가하면 생활만족도가 5% 증가하며, 62~71세 고령자는 가계소득이 1단위 증가하면 생활만족도가 7%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72세 이상 고령자는 62~71세 고령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생활만족도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자가 여부는 62세 이상 전체, 62~71세, 72세 이상 고령자 모형 모두에서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자가를 보유하면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62~71세 고령자는 생활만족도가 124% 증가하고 72세 이상 고령자는 생활만족도가 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보유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는 72세 이상의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아주 부(-)적인 영향을 주었지만($p<0.001$), 62~71세 고령자에게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p>0.05$). 72세 이상의 고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으면 수급을 받지 않는 고령자 생활만족도의 35%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72세 이상의 고령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생활만족도를 약 65% 떨어뜨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적연금 수급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이상 고령자 전체모형에서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p<0.05$). 그러나 62~71세, 72세 이상 회귀모형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p>0.05$).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포함된 특수직역연금 수급은 62~71세, 72세 이상 고령자 모형 모두에서 생활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수직역연금을 수급받으면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62~71세 고령자는 생활만족도가 97%, 72세 이상 고령자는 생활만족도가 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수급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6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제9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자료(2021년)를 이용하였으며, 조사 당시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만 62세 이상 고령자 4,89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식은 자료의 성격을 반영하여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연금 수급 가능 연령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Park(2015)과 Kim(2022)의 연구 결과에서도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생활만족도는 관계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들(Kim et al., 2014; Lee, 2013; Choi & Yoon, 2012; Kim & Park, 2023)도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연구 결과도 있다(Lee & Chun, 2001). 이렇게 모순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기찬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업무 스트레스나 여가문화 활동 어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가계소득은 62세 이상 고령자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p<0.001$). 로그값으로 계산된 가계소득 1단위가 증가하면 62~71세는 생활만족도가 5% 증가하고, 72세 이상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

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계소득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Park, 2015, 2022; Kim, 2017; Kwon & Cho, 2019; Kim & Park, 2023).

셋째, 자가 여부는 6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p < 0.001$). 고령자가 자가 소유를 하면 하지 않은 고령자에 비하여 62~71세는 생활만족도가 124% 증가하고, 72세 이상은 1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자가 보유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아주 크게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고령자의 자가 보유 효과가 Sherraden(1992)의 자산복지효과 이론을 명확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72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p < 0.001$), 62~71세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2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비 수급자와 비교하면 생활만족도 수준이 3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2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공적부조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생활만족도를 많이 떨어뜨리는지 시사한다. Kim(2022)의 연구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를 아주 유의하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이상 전체 고령자의 모형에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 < 0.05$), 62~71세, 72세 이상으로 구분한 모형에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p > 0.05$). 그러나 Kwon & Cho(2019)의 연구에서도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수금액이 많지 않아서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특수직역연금 수급은 62세 이상 고령자 각각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p < 0.001$).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비수급자와 비교하면, 62~71세 고령자는 생활만족도가 85% 증가하고, 72세 이상은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이 국민연금 수급과 달리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려준다. 이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에 많은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저부담-저 급여체계지만, 특수직역연금은 고부담-고 급여체계여서 수금액의 차이가 아주 크다. 2021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5만 203원인데, 비하여 공무원연금(퇴직연금) 253만 7,160원, 군인연금 277만 1,336원, 사학연금 293만 8,790원으로 공무원연금과는 4.6배 가량 차이이고,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비교하면 5배가량 차이가 난다(Jung et al., 2023). 장애·장해·상이연금과 유족연금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차이가 아주 크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이 특수직역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려준다. Kwon & Cho(2019)의 연구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크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곱째, 부동산 보유 여부, 부채 보유 여부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고령자에게 부동산 보유, 부채보유 여부는 생활만족도와 관계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를 제외하고는 두 연령 집단간(62~71세, 72세 이상)간에는 유의한 요인의 차이가 없었다. 공통적으로 가계소득, 자가 여부, 특수직역연금수급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62~71세, 72세 이상 고령자 각각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하여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경제활동을 그만두면 적응 어려움, 디스트레스로 심리적 안정이 급속하게 악화한다는 주장(Bossé et al., 1990; Alavinia & Burdorf, 2008)과 은퇴를 하면 노년기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활동으로 더 만족스럽다는 주장(Calvo et al., 2013)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경제활동과 생활만족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활동 지원보다는 개별 고령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 가구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처분 가능 소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13년 46.2%에서 2023년 기준으로 38.2%로 많이 떨어졌다(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b). 10년 동안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떨어지게 된 것은 기초연금액의 증가, 공적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 증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고령자 고용률 증가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정책 방안을 더 확대하고 개선하여 가계소득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지만, 특수직역연금 수급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아주 크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급여와 비교해 볼 때, 적정성과 형평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제도의 강화 방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역가입자 전체 확대 방안 등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공적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은 2015년을 기점으로 피용자연금 제도가 완전히 통합하였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국민연금격인 후생연금보험과 특수직역연금격인 공제연금(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 공제조합)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공제연금이 후생연금에 비하여 유리하였다(Sung et al., 2021). 일본의 공적 통합 경험은 우리나라

공적연금 통합을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좋은 준거들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Alavinia, S. M., & Burdorf, A. (2008). Unemployment and retirement and ill-health: a cross-sectional analysis across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2, 39-45. [doi: 10.1007/s00420-008-0304-6].
-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2022).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https://dictionary.apa.org>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merican Economics Review*, 53 (1), 55-84.
<https://www.jstor.org/stable/1817129>
- Bossé, R., Aldwin, C. M., Levenson, M. R., & Workman-Daniels, K. (1990).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retirees and workers: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Psychology and Aging*, 5, 41-47. [doi: 10.1037/0882-7974.5.1.41].
- Calvo, E., Sarkisian, N., & Tamborini, C.R. (2013). "Causal effects of retirement timing on subjectiv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Social Sciences*, 68B (1), 73-84. [doi: 10.1093/geronb/gbs097].
- Choi, A., & Yoon, H. (2012).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reasons on psychological well-being by senior citizens.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3 (1), 5-32
- Clark, R. L., Burkhauser, R. V., Moon, M., Quinn, J. F., & Smeeding, T. M. (2004). *The economics of an aging society*. Blackwell Publishing.
- Diener, E., & Biswas-Diener, R. (2017). *Happiness: unlocking the mysteries of psychological wealth*. Hongkong: Blackwell Publishing.
- Havighurst, R. J., Neugarten, B. L., & Tobin, S. S. (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llier, S. M., & Georgia, B. (2011). *Ag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 Wadsworth.
- Jung, I., Kwon, H., & Lee, Y. (2023). *A comparative stud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 Kim, H. (2017). Effects of household level economic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household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health. *Studies on life and culture*, 46, 297-349
- Kim, S., Lee, M., & Chang, S. (2014). Identifying changes in psychosocial health of elderly participants in a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gram.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4, 371-393.
- Kim, W. (2022). *The effect of Public pensions on subjective well-being*.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Y., & Park, C. (2023).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pensions and real estate assets in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n the satisfaction of life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8 (3), 285-305. [doi: 10.13049/kfwa.2023.28.3.2].
- Kim, Y., & Yang, Y. (2023).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public pension supply and demand,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Aging-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15 (2), 95-108. [doi: 10.34264/jkafa.2023.15.2.95].
- Kwon, H., Cho, H. (2019).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being in receipt of old-age income benefi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 (2), 160-191. [doi: 10.15709/hswr.2019.39.2.160].
- Lee, H., & Chun, D. (2011). Productive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comparative study between rural and urb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 419-437.
- Lee, H., & Li, M.(2022). Supplementary role of personal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13 (1), 40-52. [doi: 10.22987/jifso.2022.13.1.40].
- Lee, S.(2013). Social role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older adults, *Korea Social Policy Review*, 20 (4), 9-35
-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3a). *2023 Household Finances and Welfare Survey*
-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3b). *Average monthly household balance per household by age of head of household*
-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4a). *Statistics of the elderly*
-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4b). *2024 Household Finances and Welfare Survey*
-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a).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
-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b). *The trend of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7/2025/0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National Pension*.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200>
- Myers, D. 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1), 56 - 67. [doi: 10.1037/0003-066X.55.1.56].
- Neugarten, B.L., Havighurst, R.J., & Tobin, S.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2), 134-143 . [doi: 10.1093/geronj/16.2.134].
- OECD (2023a).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OECD.
- OECD (2023b). *Labor Force Statistics*. OECD.
- OECD (2023c). *Pension at a glance 2023*. OECD Publishing.
- Park, C.(2015). Major types of social

-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eld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1 (2), 157-183
- Park, C.(2022).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by gender and age of middle-aged an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2 (4), 855-871. [doi: 10.31888/JKGS.2022.42.4.855].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New York: M. E. Sharpe.
- Sung, H., Shin, S., & Yoo, H. (2021). *Disparity and Resolution of Public Pension System*,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 Thomas, C., Benzeval, M., & Stanfeld, S. (2005). "Employment transitions and mental health: An analysis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9, 243-249. [doi: 10.1136/jech.2004.019778].
- Warr, P., Butcher, V., Robertson, I., & Callinan, M. (2004). "Older people's well-being as a function of employment, retiremen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role preferenc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 297-324. [doi: 10.1348/0007126041528095].
- Winkelmann, L., & Winkelmann, R.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 (257), 1-15. [doi: 10.1111/1468-0335.00111].

Received: October 1, 2025

Revised (final form): October 29, 2025

Accepted: October 28, 2025